

“공수처 설치 연내 법 통과 목표 … 수사 검사 25명이면 충분”

취임 100일 맞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터뷰

대담=홍행기 편집부국장

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오는 2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. 지난 20일,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순천의 한 식당에서 광주일보와 만나 법무부 탈 검찰화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, 검·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. 특히 공수처의 경우 법무부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직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올 가을 국회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. 호남(무안) 출신인 박 장관은 5·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‘진상 규명은 의무’라며 법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했다. 다음은 일문 일답.

-지난 7월 19일 취임 이후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간다. 법무부 ‘탈 검찰화’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.

로 본다. 법무부로서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,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대검과 적극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해 가겠다.

-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법무부안이 발표됐다. 애초 예상보다 설치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.

▲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일단 목표다. 공수처의 규모가 줄었지만, 기능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다. 너무 큰 규모로 출범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측에서는 그런 걸 트집잡아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규모로 추산을 했다.

-그럼에도, 지나치게 규모를 줄여버린 것은 아닌가.

▲박명계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안은 검사가 20명이다. 법무부안인 25명이 터무니없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. 일선 수사부서로 따졌을 때 3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다. 요즘엔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 대상이 워낙 많아서 그러는데,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(25명이면) 충분히 수사를



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순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있겠다. 이 부분엔 동감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 특히 젊은 검사들은 동감할 것이라고 본다.

-요즘 화두는 적폐청산이다. 일부에선 적폐수사의 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 아

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▲적폐청산의 목표가 있을 수는 없지만,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. 수사 과정에서 계속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(수사할)하는 부분도 있

다.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끝내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수사가 될 수 있고, 또 굉장히 권위적이다. 하지만, 많은 국민이 적폐청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, 잘못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무·검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.

-얼마 전 5·18 희생자 암매장지인 광주 교도소 인근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발굴 승인을 미루는 것처럼 보여졌는데.

▲사실이 아니다. 당연히 (발굴을) 처음부터 승인하려고 했다. 그럼에도 당시 법무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, 이는 오해다. 당시 주관단체가 5·18기념재단 한 곳이고, 대외비로 발굴한다고 해서 다른 유족들과 협의가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.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.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오월단체 대표들을 만나보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. 국방부장관하고도 ‘국군유해발굴단이 전문가들이니 유족회와 같이 발굴하면 좋겠다. 기술적인 도

구체적인 방안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사건을 선정하고,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당시는 엄숙한 군부독재 시절이었다. 모든 국가권력을 군 출신들이 다 틀어쥐고 있던 시대였다. 시대적 상황이 비극을 낳았다. 국가적 비극이었다.

-5·18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이자 이정표다. 하지만,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.

▲광주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화 성지다. 1980년 5·18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. 그것은 의무다.

-이번 광양 방문이 취임 후 첫 지방방문이다.

▲오는 27일이 취임 100일인데,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다. 각 지방 검찰청 방문 등도 차츰 추진하려고 한다. 이번 광양 방문은 ‘법사랑타운’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. 이 사업은 범죄 취약 지구의 환경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이다. 새로운 관점에서 범

검찰 개혁은 건강성 회복하고 국민 신뢰 얻는 것

적폐청산 빨리 끝내야…잘못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

5·18 암매장지 발굴 전문가·기술 지원해 돕겠다

조만간 과거사조사위 출범…진실규명 최대한 협조

움을 줬으면 좋겠다’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.

-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‘조비오 신부 명예훼손’ 사건을 현재 광주지검이 수사중이다. 필요한 경우 전 전 대통령 소환 수사도 가능할까.

▲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범인으로부터 출판·배포금지 가져본 결정을 받았음에도 문제된 부분만 지우고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. 전직 대통령이 자숙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변명하는 일이 참 안타깝다. 일단 광주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니 향후 진행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.

-지역에서는 검찰이 80년 5·18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규명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. 지금 검찰이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, 5·18도 포함시킬 생각이 있는지.

▲조만간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출범한

죄 예방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-호남 출신 법무장관과 역시 호남출신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가 높다.

▲서로 만나고 협의하고 있다. 문 총장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데 항상 의견이 같았다.

-지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

▲제가 65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는데, 비 법조인 출신으로서 3번째다. 교수 출신인 법무부 장관은 드문 경우인 데다 다음에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으니 나중에 나갈 때 잘했다는 말을 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.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했고, 더 개혁적이고, 문제를 더 많이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. 특히 법치주의가 제대로 숨 쉬고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.

/정리=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불로(福)이오~쇼~

경품평평!! 사은행사

1등

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(1명)

2등

LG 전기 건조기 (1명)

3등

갤럭시북 태블릿PC (1명)

4등

샤오미 미밴드2 (100명)

※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처 부담입니다.

가인 기념품!!

보조배터리

손톱 깎이 세트

모바일 쿠폰

보온보냉병

상품구분	자격기준	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
체크카드	최초 신규발급 이용자	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
대출	신규실행 고객 (공제미납 및 예적금발입내 제외)	실행시
정기예금 및 적금	신규가입 고객	당일 1건에 한함
출자 적립	10만원 이상 입금시	최초 1회
생명공제	신규가입 고객	중복 지급 가능
손해공제	신규가입 고객	
급여/가맹점	신규연결 고객	
스마트뱅킹	신규가입 고객	가입시
스마트알림	신규가입 고객	
상상뱅크	신규가입 고객	
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'경품행사' 추첨대상		

행사기간 | 2017년 10월 16일(월) ~ 12월 29일(금)

경품추첨 | 2018년 2월 예정(18년도 정기총회)

MG금남새마을금고

대인본점 ☎ 223-8007, 232-7251
충장지점 ☎ 223-7217, 223-7218